

호주 LCT, DiabeCell 관련 4번째 미국 특허 획득

호주의 첨단생명공학회사인 리빙 셀 테크놀로지(Living Cell Technologies Ltd.)가 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다이아비셀(DiabeCell)과 관련해 4번째 미국 특허를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동사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특허는 돼지의 췌장으로부터 분리한 섬세포를 캡슐화하는 기술을 포함해 1형 당뇨병의 치료와 관련된 다이아비셀의 이용을 커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기술은 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에서도 긍정적인 예비결과를 얻었다.

더불어, LCT는 신경영양세포 기술 및 인체 치료에 사용되는 살아있는 세포의 캡슐화 기술에 대해 전세계에서 받은 특허로 구성된 여러 특허패밀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출처 : Trading Markets

Emerson Radio, TPL 그룹과 MMP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계약 체결

미국의 패트리엇 사이언티픽(Patriot Scientific)은 지난 3월 17일, 이머슨 라디오(Emerson Radio Corporation)가 패트리엇의 라이선싱 파트너인 TPL 그룹으로부터 무어 마이크로프로세서 특허(Moore Microprocessor Patent) 포트폴리오 라이선스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머슨 라디오는 이머슨 앤드 HH 스캇(Emerson and HH Scott)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오디오, 비디오, 홈 시어터, 텔레커뮤니케이션 장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가전을 제작, 판매, 라이선스하는 기업이다.

패트리엇의 회장 겸 CEO인 릭 고

너(Rick Goerner)는 “이머슨 라디오는 5월에 종료되는 현재의 회계분기 기간 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2번째 업체이며, 지난해 12월에 텍사스 법원에서 있었던 MMP 특허 침해소송이후에 MMP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10번째이다. 우리의 라이선싱 프로그램이 이러한 여세를 계속 몰고 가서 향후에도 성공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MP 포트폴리오 디자인 기술의 응용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최종소비자 상품을 제조하는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MMP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계약

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에서만 4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MMP 포트폴리오 기술을 라이선스 받았으며, 이 가운데에는 각 분야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후지쯔, 휴렛 팩커드, 쉐넬, 마텔, 노키아, 필립스, 소니, 도시바 등도 포함되어 있다.

MMP 포트폴리오 특허는 고성능 저비용의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주며, 디지털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DVD 플레이어, 휴대 전화, 휴대 음악 플레이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의학장비, 자동차 등에 이용되고 있다.

출처 : Sys-con



美 Hop-on, ASA와 “Graffiti” 상표분쟁에서 화해

미 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텔레커뮤니케이션 개발업체 Hop-on(Access Systems and Hop-on, Inc.)이 일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ASA(Access Systems Americas, Inc., Palm Source)에서 명칭 변경)와 지난 2월 26일, 계쟁 중이던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고 비밀화해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된 Hop-on과 ASA간의 분쟁은 “그래피티(GRAFFITI)”라는 상표의 사용 및 등록에 관한 것으로, 이번 화해를 통해 Hop-on은 동사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출원 시에 지정했던 범위(휴대 전화와 무선 서비스)내에서 ‘Graffiti’ 및 ‘Graffiti Wireless’ 라는 상

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ASA도 마찬가지로 USPTO에 상표신청 시에 지정된 범위(필적인식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내에서 ‘Graffiti’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출처 : The Earth Times

